

서호인의 '소설처럼'



우리가 빌딩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박소란 '빌딩과 시'

우리는 산과 강을, 바다와 하늘을 이야기한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것들이 훼손되는 현실을 걱정한다. 그런데 정작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은 도시이며 더 협소하게 살피자면 '빌딩'이다. 마천루 빌딩에 서부터 낡아빠진 연립주택까지 모두 빌딩이며 우리는 이런저런 빌딩을 들어갔다 나갔다 다시 들어가길 반복하며 일상을 영위한다. 어느 빌딩 안에 있는 집에서 일어나 어느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에 간다. 두 빌딩을 오가는 길에 수많은 빌딩이 늘어서 있다. 그중 어느 빌딩에 있는 편의점에 간다. 세탁소에 간다. 부동산에 간다. 병원에 간다. 마트에 간다. 그것들은 모두 빌딩에 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빌딩 없이는 설명 불가능하다. 본 글도 필자가 자주 다니는 어떤 빌딩 안에서 쓰고 있으며 글을 읽는 당신도 어느 빌딩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빌딩에 갇힌 결과. 빌딩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빌딩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별 일 없이 살면 되는 걸까.

거리는 사람. 상자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사람"을 상상하게 된다. 그곳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 예컨대 고층 건물에서 야근하며 먼 풍경을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비상계단에서 누군가 떨어트린 밴드나 실핀을 줍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거대한 빌딩을 보며 헤어질 연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빌딩에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글을 따라 빌딩에서 새어 나오는 빛과 그 빛에 둘러싸인 사람을 상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슬픔에 빠져든다. 우리는 빌딩에서 생을 다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빌딩은 때로 무너지고 불에 타며 유독가스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어떤 빌딩에서는 사람이 뛰어들고 또 다른 빌딩에서는 권력이 시민을 죽이기도 했다. 학창 시절 필자가 자주 갔던 빌딩은 총장로 전일빌딩이었다. 빌딩 1층에 크나큰 오라실이 있었다. 거기서 격투 게임 아니면 리듬 게임을 즐겼다. 그렇게 시시덕거다 보면 문득 그 빌딩에 얽힌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곳에서 사람이 많이 끌려갔다. 뿔뿔은 죽었다.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쏘았다. 헬기 조종사 사격을 했다. 그 모든 일이 빌딩 안에서, 빌딩 겉에서, 빌딩

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소름이 일다. 소름 뒤에 슬픔이 밀려온다. 빌딩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빌딩에서의 폭력 또한 당연히 사람의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빌딩의 역사다.

'빌딩과 시'를 읽은 후에는 시인의 최근 시집 '수옥'을 읽는 게 좋다. 시집은 부고의 연습처럼 느껴진다.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이 있는 빌딩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아니, 부고를 돌리고 아직 손님이 오지 않은 빈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정갈한 자세로 슬픔을 맞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능되는 사람이라면, 박소란 시인의 두 책에서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한 빌딩에서 최대한 슬프지 않으려 애쓴다. 이 빌딩에서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며 업무에 집중하고 저 빌딩에서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하며 정신을 흐트린다. 그 빌딩에 함께 있는 사람을, 건너 빌딩에 외따로 떨어진 사람을, 같은 빌딩 다른 층의 낯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잊고 싶어 한다. 나를 생각하는 건 괴로운 일이나, 사람을 생각하면 결국 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슬픔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괴물 아닌 사람으로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다면 박소란의 글과 시를 읽기를, 빌딩 안에 앉아

<시인>

의료칼럼

무삭제 라미네이트 바로 알기



유수경 화정유치과 대표원장

교정치료를 진행해야 함에도, 쉽고 빠른 교정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라미네이트 치료를 함으로써 두고두고 논란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 환자들은 치아 삭제량에 아주 예민하다. 충치가 심해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한 치아조차 발치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회적 니즈에 맞춰 등장한 게 바로 무삭제 라미네이트이다. 이는 네이밍 만으로도 그동안의 라미네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그 명칭처럼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고, 앞니를 가지런하게 하는 시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어 낸 전의 라미네이트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불리는 시술도 치아를 전혀 삭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의 급속 교정이라고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에 비해 치아 삭제량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산물이 무삭제 라미네이트인 것이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벌어진 치아, 깨진 치아, 들어간 치아(우니), 작은 치아(쇼스치)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어느 정도 치아 형태를 정돈해야 라미네이트로 치아를 깔끔하게 개선할 수 있다. 치료 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할 수밖에 없으며,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기존의 라미네이트 치료 방법과 큰 차

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치아 삭제량은 환자의 치아 상태 및 치료 후 개선효과(기대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얇게 보철물(얇은 판)을 만들어 붙이더라도 치아가 커지거나 두꺼워질 수밖에 없으며, 라미네이트와 잇몸 경계 부분이 두터워져 잇몸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치아 삭제에 따른 시립 증상이나 우식증과 같은 부작용의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시술만으로 반영구적인 치아 미백 및 교정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시술 후 환자의 관리 상태 및 시술 상태에 따라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를 받고, 심미보철을 전공한 전문 의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치아 삭제를 동반하지 않는 라미네이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직 미용의 목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치아를 삭제하고 보철물을 붙이는 시술이 과연 치아의 보존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라미네이트 시술은 심미성과 보존성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차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제2의 라미네이트 부작용 논란이 없길 바라며, 이런 마음에서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아닌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로 불리길 바라는 바이다.

기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대응담



김민환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역에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을 겪기도 하였다. 유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사용량 절감, 산업단지 공장 정비시기 조정으로 공업용수 절감, 발전용수나 농업용수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생활용수로 공급하였다.

근원적 가뭄 해소를 위해 2023년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중장기 가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비상 연계, 신규 수자원 개발(지역 중·소규모 댐 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의 물그릇과 효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구조적인 대책으로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의 빈도가 커지고 있다.

영산강유역에는 다목적댐이 아닌 4개의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홍수조절을 거의 할 수 없다.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생활용수를 섬진강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부권에 용수 공급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14곳을 기후대응담 건설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우리 지역에는 화순 동북천댐, 순천 옥천댐, 강진 병영천댐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주민설명회, 타당성조사 등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댐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수몰 지역 발

생, 불충분한 보상과 댐 하류의 수량과 수질 문제로 반대한다. 축적된 기술로 댐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려되는 상당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 향상, 댐건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그릇 확대와 더불어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물 산업, 물 거버넌스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물 이용에서는 신규 수자원 확보로 국가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물 안전에서 댐은 기반 시설로서 기후변화로 찾아지는 가뭄과 홍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 환경에서는 댐의 수질관리를 위해 상류 오염원 관리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물 산업전략에서는 댐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드론, AI 등)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다.

지난번 겪은 가뭄과 홍수를 되돌아 보면 구조적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컸더라면 상당 부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해, 특히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배려하는 선진 공법을 적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웨덴의 청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말이 뇌리에 스친다. "당신들은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취급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미래세대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社說

예산안 반영 사업 지키고 누락 사업은 되살려야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년 정부 예산안보다 각각 1800억원, 2900억원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대폭적인 긴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분명 박수받을 일이다. 다만 예산안은 오는 12월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장을 늦추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677조원 규모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광주시는 지역 현안 사업비로 3조 32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정부 예산안 3조 1426억원보다 1818억원(5.8%) 늘어난 수치이며, 전남

도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도 예산(8조 6021억원)에 견줘 2907억원(3.4%) 늘어난 규모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원팀'을 구성해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 예산은 최소한 지켜내거나 증액하고, 미반영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최소의 사업비라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특히 예산 369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사업과 전남대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남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 SOC 사업(2000억 이상)과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설계비 등 미반영 현안사업을 반드시 반영토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청소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강력 대응 나서야

최근 대학가, 군대는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확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서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이정선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등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 교육감은 불법 합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보고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져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딥페이크 영상은 보안수준이 높아 수사가 어렵다 보니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피해현황 파악에 나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가 297건이나 접수됐는데 일진 피의자 178명 중 10대가 131명(73.6%)에 달했다. 특히 10대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사진 공유가 일상이다보니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공유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도 광주에서도 한 고교생이 '친구 휴대전화에서 내 사진이 음란물로 합성된 것을 다른 친구가 봐서 알려줬다'며 광주경찰청 사이 배범죄 수사대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2차·3차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록 누구나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윤리교육은 물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無等鼓

대한민국이 역대급 성과를 낸 파리올림픽에서 핫이슈로 부상했던 것은 '사랑의 찬가'를 열창한 셸린 디온과 함께 센(Seine)강이다. 길이 777km의 이 강 주변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세계적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다. 아름다운 경관에 야경까지 더해 유람선은 언제나 인산인해다. 유네스코도 이 강변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다.

센강이 입방아에 오른 것은 그 수질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3종 경기장으로 쓰이지 않던 강변이 수질 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 사업을 벌였으나 19세기부터 방치했던 수질은 쉽게 깨끗함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는 광주천이 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길이 19.3km의 하천이다. 동구 구도심을 지나 상무지구를 거쳐 서구 유덕동에서 영산강에 합류한다. 원래 광주천의 폭은 현재보다 2~3배 넓었으며, 동구 계림동 일대의 경양광죽과 그 지천, 동계천·서방천·극락천 등 작은 하천들, 광

주용성 해자 등과 연계되면서 광주의 수리(水利)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일제가 광주천변을 매립해 도시제사공장(현 양동 금호아파트 단지), 사정시장(현 광주공원 앞 주차장), 운동장(현 양동시장),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 등으로 개발하면서 광주천의 물은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농지가 주택·공장·점포 등으로 바뀌며 광주천은 더이상 먹줄 감을 수 없는 구정물로 가득했다. 약취가 심해

지자 일부 구간을 아스팔트로 덮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당시 예산 691억원을 투입

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질은 나쁜 수준으로, 영산강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올 여름 동구 용산동 광주천 물놀이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광주천을 세계 도시 하천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쾌적하며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세계의 명소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 곁에 오래 흐르고 있는 이 광주천의 찬가를 불러볼 날이 왔으면 좋겠다.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광주천 찬가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